

사설

불교병원건립 '힘모으자'

불교의 목적은 극락정토의 실현이다. 부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나 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생에 복을 쌓아 내생에 극락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는 '모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곳'이라고 하였다.

극락세계와는 반대로 사바세계는 고통이 많은 곳이다. 괴로움에는 생로병사의 네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병의 고통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괴로움일 것이다. 그래서 약사여래는 12가지의 대원(大願)을 세워 이세계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재화를 소멸하고, 의복, 음식 등을 만족케 하여 깨달음의 행을 닦아 무상보리의 묘과를 증득케 한다고 서원하였다.

동국대학교가 통일로 가는 길목 일산 신도시에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16일 기공식을 가졌다.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실천하여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관음손으로 아픔을 치유하여 이 땅에 즐거움이 넘치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대원을 세웠으니 요즘과 같이 우울한 일이 많은 때 자못 통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병원의 규모는 1천 병상을 규모로 하는 한·양방 협진체제를 갖춘 중서양 의학의 교두보로서 오는 2003년 개원한다고 하니 수도권의 불교종합병원건립이라는 교계의 오랜 숙원불사가 드디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생명을 존귀하게 다루는 인간화, 의료장비의 첨단화, 발달된 의술을 공유하는 정보화를 세가지 특성으로 하는 21세기를 앞서는 의료기관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 가면 오래 십자가나 예수의 초상이 걸려있다. 십자가 밑에서 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심정은 언제

나 착잡하다. 어느 대도시에도 기독교에서 세운 종합병원을 쉽게 볼 수 있듯 의료시설은 기독교가 독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산사의 자연환경과 훌륭한 교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를 살려 중생의 현실적 고통을 치유해 주지 못하는 지비의 구조로는 행복한 복지사회, 즉 불국정토의 건설은 요원할 뿐이다.

사실 교계에서도 병원교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엄청난 재원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력이 지극하고 실현의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묘력이 있는 것이 또한 불사이다.

동국대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립대학으로 불교의료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경주캠퍼스에 한·양방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10여년간 꾸준히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제 성공적인 종합병원건립불사를 위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확보이다. 동국대는 병원병동 한창상기 등 다각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IMF시대인 요즘 중 건립예산 1천2백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 내외의 각광이 크다.

일산의 불교종합병원이 순조롭게 완공하려면 조계종을 비롯한 교계의 모든 단체와 이 땅의 천만 불자가 '별들 한장' 동참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력을 확대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광역시에도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밑거름을 삼아야 한다.

IMF체제라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전 불교도의 마음에 십시일반의 보시정신과 불교도의 지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굳은 신심으로 합심, 동참해 반드시 불교종합병원 건립이라는 대 불사를 성취해 내야 할 것이다.

남북화쟁 대중공사 '연다'

각계인사 40여명 발기...격월 포럼 개최

두달에 한번 사회 각계 중견 지도자들이 모여 불교적 통일기반 조성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대중공사가 열린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원주)는 30일 송연클럽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불교지도자 통일포럼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를 개최한다. 법장(수석주지) 지하(중앙승가대 총장) 도영(금산사 주지)스님을 비롯 고은시인, 박원순 변호사, 김광삼 현대불교사

장, 조희영교수(교수불자연학회 회장), 손혁재씨(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사회각계 중진 4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는 두달에 한번 발제자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토론은 일정한 형식없이 포럼 참석자들이 각자 분야에서 쌓아온 업적과 경험을 토대로 남북경협방안 제시를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불추위는 30일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새정부의 통일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는 1차 포럼에 이어 연말까지 5차례 걸친 포럼을 개최한다. △2차 포럼(6월)은 남북의 문화 통합과 전통 종교(불교)의 역할 △3차(8월)포럼은 '남북간 대립되는 이념의 불교 사상적 극복' △4차(10월)포럼은 '통일을 전후한 시기 북한의 종교단체에 대한 남한 종교의 입장과 대응' △5차(12월)포럼은 '정부의 통일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불교의 남북교류사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불추위 유지원 사무총장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 삼국통일의 정신적 논리로 역할하였던 것처럼 화쟁이 높은 차원에서 전체 대중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라고 포럼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교계 각 단위로 통일실천운동을 이끌어 내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불교인으로서 통일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한일 불교문화 교류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이해를 통한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19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13~15일 일본 조종본산 영평사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한국측에서 80여명의 스님과 신도가 참가했으며 일본에서는 2백여명이 참석했다.

北, 日에 문화재 반환촉구

일제약탈 유점사 불상등 불교문화재 다수

북한이 일본에 대해 일제 식민지배시기에 약탈해간 조선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중앙방송은 16일 일제는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동안 가혹한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추구하면서 조선문화재에 대한 파괴·약탈을 일삼았으며 이는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인류문명에 대한 극악한 모독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정부는 과거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약탈해간 문화재를 무조건 즉시 반환하고 충분한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제의 조선문화재 약탈행위는 한일합방 이전인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직후부터 이뤄졌으며,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 중에는 금강산 유점사 53불 중 11불을 비롯 개성부근의 석탑, 부도 등 국보적 가치가 높은 불교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김포학사 공기연장

중앙승가대 학사추진위

중앙승가대학교 학사추진위원회(위원장 지하)는 18일 오후 2시 조계종 교무원장 안도스님 교육부장 황적스님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상해 스님 동문화장 효종스님 시공업체인 풍림건설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김포학사건립 공사기간 6개월 연장과 공사비 총 80억 증액 등을 결의했다.

승가대 동문화

봉은사주지 효종스님 추천

중앙승가대동문화(회장 효종)는 15일 운영회의를 열고, 봉은사 주지에 동문화장 효종스님을 단일화로 추천했다. 이날 운영회의에서는 또 봉은사 주지는 정회원 동문으로 4년 단임으로 하며, 봉은사 운영은 원용살림과 공개살림을 해야한다고 결의했다. 또 이를 위해 동문스님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결성했다.

한편 중앙승가대동문화의 이 같은 결의에 대해 봉은사는 '봉은사 주지문제'는 봉은사 대중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중앙승가대동문화는 봉은사 주지 추천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건축문화의 해'

21일 문화부 발표

1999년은 '건축문화의 해'로 정해졌다. 문화관광부는 21일 내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각계 인사 1백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종교인교류협회' 결성하자"

전불련 워크숍서 민통협 이금순박사 제안

민족화합불교추진위가 주최하고 전국불교운동연합이 주관한 제2차 통일을 준비하는 불교정책 워크숍이 지난 19일 포교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를 맡은 민족통일연구원 이금순박사는 '신정부의 대북교류 및 협력정책'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각 종교 및 교파간의 소모적 분파활동과 경쟁을 자제하고 통일여건 조성사

업을 위한 범종교적 '남북종교인교류협회(가칭)' 결성을 제안했다. 또 △국제적 종교단체와 연대해 평화통일, 인권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선교 및 교화목적 보다 인도주의적 목적을 기반으로 남북한 신뢰회복과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 등 민간부분 교류협력에 대한 종교계의 과제를 지적했다.

조계종본사 7직스님들 '일문회' 창립

회장에 원담스님

전국 교구본사 7직국장 스님들을 주축으로 하는 모임인 일문회(회장 원담)가 16일 부산 글로리콘도 대회의실에서 창립했다.

이날 판통사 정안스님, 화엄사 해봉스님 등 20여 스님이 참석했으며 원담스님을 회장으로 해봉스님과 도감사의 범각스님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원담스님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역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당면문제들에 공감할 형성해 나가 불교문화의 사회화와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문회는 지역간의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 불교문화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7월에 나주 다보사에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시작을 두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여의도문화센터 설립 '제동'

정빈스님 잠적 공사중단

조계종 총무원이 추진중이던 여의도불교문화센터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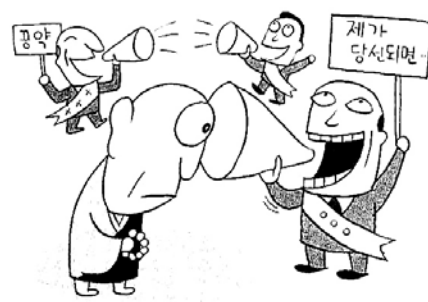
여의도 신승빌딩에 1백50명의 법당과 사무국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었던 문화센터는 내부 설비공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설립책임 맡았던 정빈스

님(前 조계종 사서처장)이 잠적, 공사가 중단됐다. 정빈스님은 공사계약금과 건물 전세 계약금 등의 일부를 챙겨 잠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정빈스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암으로부터 개별적인 회주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현대만평



속보이는 공약은...

737-8881

출판기념 대법회

眞際大禪師 禪修行 法語集 拈花人天 출간!!

● 삼가 모십니다 ●

경허, 혜월, 운봉, 향곡 스님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이어오신 진제대선사께서 불자들의 올바른 수행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세번째 법어집 「염화인천」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님을 모시는 저희들의 작은 힘을 모아 출판기념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생활의 해법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 일시 : 1998년 5월26일 낮 12시
- 장소 : 해운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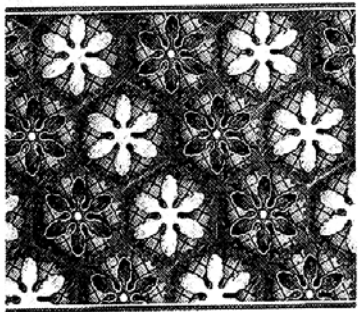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해운정사 금모선원

선원장 명 언 신도회장 서석인 신도회 일동 합장

♠ 문의전화 : 051-746-2256/4812

眞際大禪師 法語集

拈花人天



▶ 신국판 340쪽/값 8,500원
화산문화 발행

불속에 연화가 처처에 필피
마침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손가락 땀기는데 팔만
사천 법문을 뚜렷이 이루니
찰나 시간에 항사강 모래 숫자와
같은 업을 소멸함이다